

성인 여성의 연령 비만도에 따른 기성복 맞음새 선호 경향 조사

A Study o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for Ready-to-wear by the Age and Obesity Level of Adult Women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강 사 석 혜 정
교 수 김 인 숙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hee Univ.

Lecturer : Seok, Hye Jung

Professor : Kim, In Suk

● 목 차 ●

I. 연구목적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it preference tendency for ready-to-wears(jackets, skirts, and slacks) of adult women and to find out the respective differences by the age range and the obesity level.

The study method was the questionnaire survey with the subjects of 699 women of 20 up to 59 years of age.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fit preference tendency, physical measurements, age, and occupation. For the data analysis, SPSS 9.0 program was used, and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s, ANOVA, Duncan's test, and t-test were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Regarding the fit preferred for each part of jackets, skirts, and slacks, among ready-to-wears, the 'thing with some extra width' in every part was most favored, followed by the 'thing fitting perfectly.'
2. Th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by the age of adult wome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was higher among those in their 20's than among those of the other age range, and those in their 30's and 40's preferred the clothes with less extra width in comparison with those in

Corresponding Author: Seok, Hye J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272 Fax: 82-2-961-0265 E-mail: pinky90@hanmail.net

their 50's.

3. The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by the obesity level of adult wome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was high in the order of the emaciation, normalcy, and obesity types.
4. The fit preference tendency was found to be more affected by the obesity level than by the age. The fit preference tendency by the obesity level of each age range showed the differences in all of the age range. However, the normal type did not show the preference difference among the age ranges, in the fit preference tendency by the age range of each obesity level.

Clothing manufacturing firms shoul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such as their age, body type, extra width preferred, to provide the consumers of target market with suitable leeway, and they should design the clothing products which meet up these needs in style and silhouette.

주제어(Key Words): 맞춤새 선호도(fit preference), 기성복(ready-to-wear), 연령(age), 비만도(physical constitution)

I. 연구목적

산업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은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 왔고, 의류 산업도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기성복 구입율은 94.1%(최혜선, 이경미, 1995)로, 대부분 기성복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다양한 직업은 자신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 의복의 구매 및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기성복은 근래에 들어 유행의 흐름이 빨라짐에 따라 디자인이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 소비자들의 개인적 취향을 만족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의복의 맞춤새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별, 연령, 체형, 선호하는 패션 경향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맞춤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 제한을 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이 기성복을 구입할 때 구매 결정 요인을 조사한 결과(삼성패션연구소) 맞춤새가 5점 만점에 4.4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장의 경우 다른 구매 결정 요소 즉 내구성(4.37), 칼라(4.34), 디자인(4.3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의복 구매시 맞춤새가 가장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의복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적절한 맞춤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맞춤새는 기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의복을 신체에 자연스럽게

맞게 해 주어 미적인 면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성복 업체에서는 목표 시장의 소비자에게 적절한 맞춤새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스타일이나 실루엣을 제공하는 의류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맞음새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치수의 적합성과 부위별 불만족, 수선 부위에 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김양원, 1999; 이진희, 2001; 정주희, 1994)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맞춤새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오설영(2002)과 손희순 외(2000)만으로 부족하다.

오설영(2002)의 연구에서는 만 18-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টে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맞춤새에 대해 꼭 맞게 입는다(1점)부터 여유있게 입는다(7점)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응답자의 체형별, 브랜드의 타겟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허리가 가는 체형이 다른 체형(일자 체형, 골반이 발달한 체형, 어깨가 발달한 체형)에 비해 꼭 맞게 입는 것을 선호하였고, 브랜드의 타겟 연령이 높을수록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하였다.

손희순외 6인의 연구(2000)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 의복 맞춤새 선호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아이টে(재킷, 스커트, 바지)의 부위별 선호하는 맞춤새를 조사한 결과, 중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맞춤새 선호도가 높아, 신체 밀착형을 선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맞춤새의 선호도는 민족별, 체형별, 브랜드의 타겟 연령별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손희순외의 연구에서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설영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실제 체형과 연령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 아닌 본인이 생각하는 체형과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타겟 연령으로 집단을 나누어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의 연령과 비만도에 따른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맞춤새와 관련이 깊은 소비자의 연령과 비만도에 따른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연령과 비만도 중 맞춤새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기성복 정장(재킷, 스커트, 바지)의 맞춤새 선호 경향을 조사하여 연령대별, 비만도별 각각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의류제조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소비자 집단에 대한 시장 세분화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기성복 정장 중 재킷, 스커트, 바지의 각 부위에 따른 맞춤새 선호 경향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성인 여성의 연령별 맞춤새 선호 경향을 알아보고 차이를 고찰한다.
- 연구문제 3. 성인 여성의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을 알아보고 차이를 고찰한다.
- 연구문제 4. 성인 여성의 맞춤새 선호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과 비만도의 관계를 고찰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성인 여성의 기성복 맞춤새 선호 경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20세에서부터 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2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비조사를 걸쳐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과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25부를 회수하여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6부를 제외하고 699부를 통계처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전업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측정 도구

설문지는 맞춤새 선호 경향 15문항, 신체 치수 2문항, 연령,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춤새 선호 경향 문항은 선행 연구(손희순외 6인, 오설영)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고안한 것으로, 정장 중 재킷, 스커트, 바지의 부위별 “어느 정도 맞춤새(여유분)를 원하십니까?”의 질문에 4단계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각 아이터별 측정 부위는 <표 2>와 같다. 각 아이터의 부위는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고, 의복 구매시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를 선정하였다.

척도는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 “여유가 약간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령	빈도(명)	비율(%)	직업	빈도(명)	비율(%)
20-29세	296	42.35	생산직	29	4.15
30-39세	150	21.46	전문직	105	15.02
40-49세	161	23.03	전업주부	185	26.47
50-59세	92	13.16	사무직	114	16.31
			판매직	92	13.16
			학생	114	16.31
			기타	60	8.58
Total	699	100.00	Total	699	100.00

〈표 2〉 설문지에 구성된 각 이이템별 측정 부위

아이템	재킷	스커트	바지
측정부위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소매통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폭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 바지부리통 밑위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여유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의 4단계 중 가장 원하는 맞음새에 표시하게 하였다.

맞음새 선호 경향의 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0.76으로 나타났다.

신체 치수를 묻는 문항은 키와 몸무게를 스스로 적게 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기초통계와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test,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4. 용어의 정의

1) 맞음새 선호 경향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맞음새 선호 경향이 높다’라는 것은 의복의 여유분이 적어 몸에 꼭 맞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반대로 ‘맞음새 선호 경향이 낮다’라는 것은 의복의 여유분이 많은 느슨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음새 선호 경향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처리하였다.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를 1점,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를 2점, “여유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를 3점, “여유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를 4점으로 처리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2) 비만도 분류

비만도 분류는 신체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Rohrer

지수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Rohrer지수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 있는 키와 몸무게의 신체계측치를 사용하여 비만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편리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성민정, 김희은, 2001). Rohrer지수의 판정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박우미(1993), 백희영 외 3인(2000), 성민정, 김희은(2001), 주재은 외 2인(2001)이 제시한 판정 기준으로 수척, 정상, 비만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Rohrer지수가 1.2미만은 수척, 1.2이상에서 1.5미만은 정상, 1.5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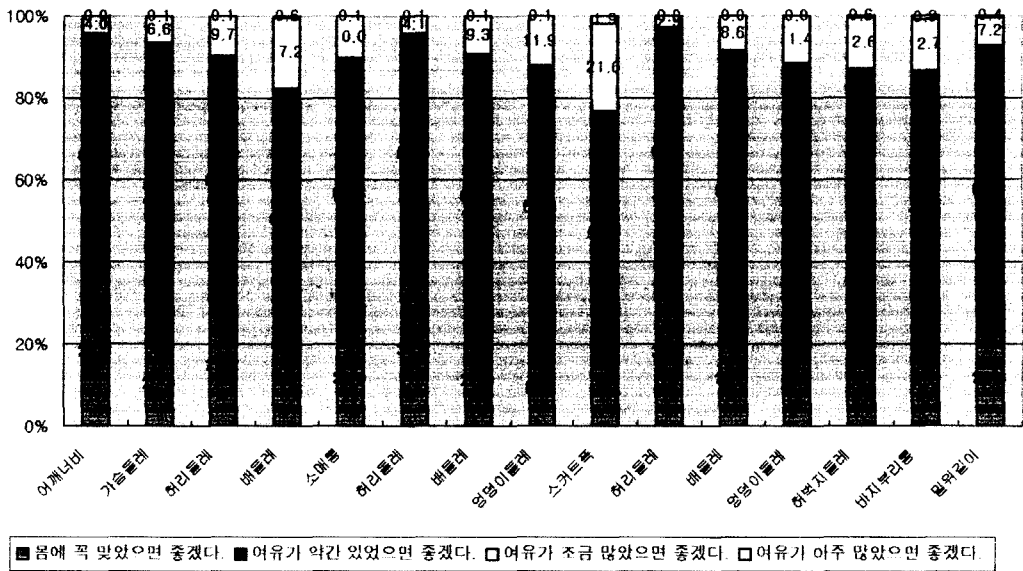
1. 성인 여성의 기성복 맞음새 선호 경향

총 응답자의 맞음새 선호 경향의 빈도를 〈그림 1〉에 나타냈다. 모든 부위에서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를 선호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가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다. 즉 성인 여성들은 여유가 많은 옷을 선호하지 않고, 몸에 꼭 맞거나, 약간의 여유가 있는 옷을 선호하였다.

각 아이템의 부위별 맞음새 선호도의 평균과 최

〈표 3〉 각 부위별 맞음새 선호 경향 평균 및 최빈값

아이템	부위	평균	최빈값
자켓	어깨너비	1.68	2
	가슴둘레	1.87	2
	허리둘레	1.81	2
	배둘레	2.01	2
	소매통	1.87	2
스커트	허리둘레	1.67	2
	배둘레	1.88	2
	엉덩이둘레	1.94	2
	스커트폭	2.09	2
바지	허리둘레	1.66	2
	배둘레	1.85	2
	엉덩이둘레	1.95	2
	허벅지둘레	1.99	2
	바지부리통 밑위길이	1.99 1.85	2 2



〈그림 1〉 전 응답자의 부위별 맞춤새 선호 경향 빈도

빈값은 〈표 3〉과 같다. 각 아이템의 맞춤새 선호 경향의 평균은 1.66에서 2.09의 범위에 분포해 몸에 꼭 맞거나, 여유가 약간 있는 옷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낮은 점수를 보인 부위는 바지의 허리둘레(1.66), 스커트의 허리둘레(1.67), 재킷의 어깨너비(1.68)로 나타났다. 높은 점수를 보인 부위는 스커트폭(2.09), 재킷의 배둘레(2.01)로, 이 부위는 여유가 약간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각 아이템의 부위별 맞춤새 선호 경향의 최빈값은 2로, 많은 응답자들이 여유가 약간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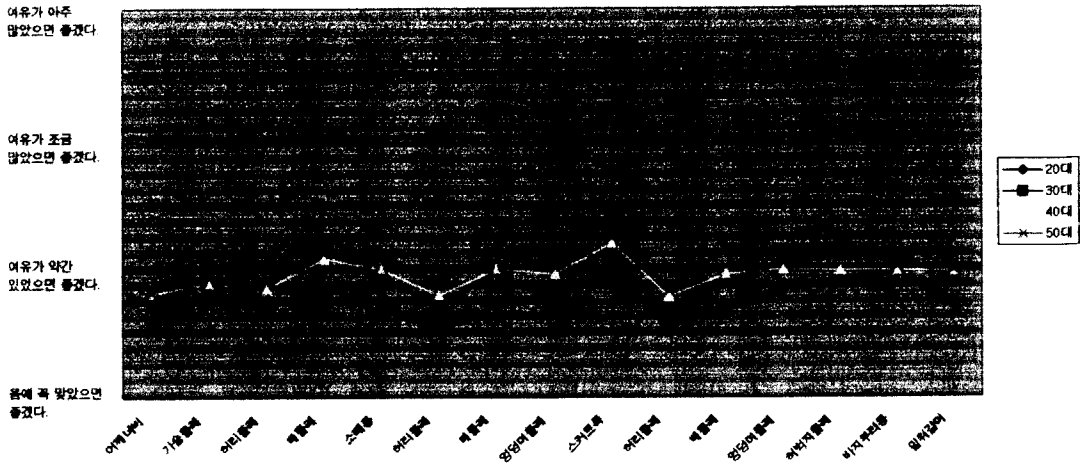
2. 연령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맞음새 선호 경향이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부위에서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에 걸쳐 있어, 전 연령층에서 여유가 약간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바지의 바지부리통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재킷의 어깨너비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아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고, 가슴둘레는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했다. 허리둘레는 20대, 340대, 50대 순으로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배둘레와 소매통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다.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좀 더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30대, 40대, 50대 사이에서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부위만 50대가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스커트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배둘레, 스커트폭은 20대, 340대, 50대 순으로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다. 20대가 가장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고, 그 다음은 30대와 40대가 비슷한 경향을, 50대가 가장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하였다.



<그림 2> 각 연령대별 부위별 맞춤새 선호

<표 4>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연령대	20대(296명)	30대(150명)	40대(161명)	50대(92명)	F-value
재킷	어깨너비	1.55 B	1.75 A	1.80 A	1.80 A	11.32***
	가슴둘레	1.80 B	1.89 B	1.88 B	2.02 A	4.61**
	허리둘레	1.70 C	1.85 B	1.84 B	2.02 A	7.89***
	배둘레	1.84 C	2.14 B	2.07 AB	2.22 A	14.71***
	소매통	1.72 C	1.93 B	1.98 AB	2.08 A	14.53***
스커트	허리둘레	1.53 C	1.70 B	1.78 AB	1.88 A	13.19***
	배둘레	1.70 C	1.96 B	1.98 B	2.12 A	20.89***
	엉덩이둘레	1.81 C	2.05 AB	1.95 B	2.13 A	11.66***
	스커트폭	1.95 C	2.11 B	2.18 B	2.34 A	9.87***
바지	허리둘레	1.56 B	1.65 B	1.77 A	1.83 A	8.87***
	배둘레	1.69 C	1.89 B	1.94 B	2.15 A	22.00***
	엉덩이둘레	1.82 C	2.03 AB	1.99 B	2.12 A	10.60***
	허벅지둘레	1.90 C	2.09 AB	1.98 B	2.16 A	7.56***
	바지부리통	1.95	2.07	1.98	2.01	1.44
	밑위길이	1.73 B	1.91 A	1.96 A	1.99 A	10.2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A > B > C : Duncan-test, p ≤ 0.05 수준

바지의 허리둘레는 2,30대가 4,50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배둘레는 20대, 3,40대, 50대 순으로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으며,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 밑위길이는 20대가 4,50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다. 모든 부위에서 20대가 50대보다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이상의 결과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3,40대가 50대에 비해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고, 또한 30대와 40대는 맞춤새 선호 경향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20대의 각 부위별 선호도 점수가 1.53에서 1.95이고, 50대는 1.80에서 2.34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연령의 증가율과 맞춤새 선호 경향 증가율이 함께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0대 역시 트렌드인 여유가 없는 피트니스는 높은 의복과 스트래치성 소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맞음새 선호 경향이 비만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비만도 집단의 모든 부위가 '여유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에 걸쳐 있다.

각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한 결과를 <표 5>에 나타냈다. 바지의 바지부리통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배둘레는 수척, 정상, 비만 집단 순으로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가슴둘레는 수척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다.

스커트는 모든 부위에서 수척, 정상, 비만 순으로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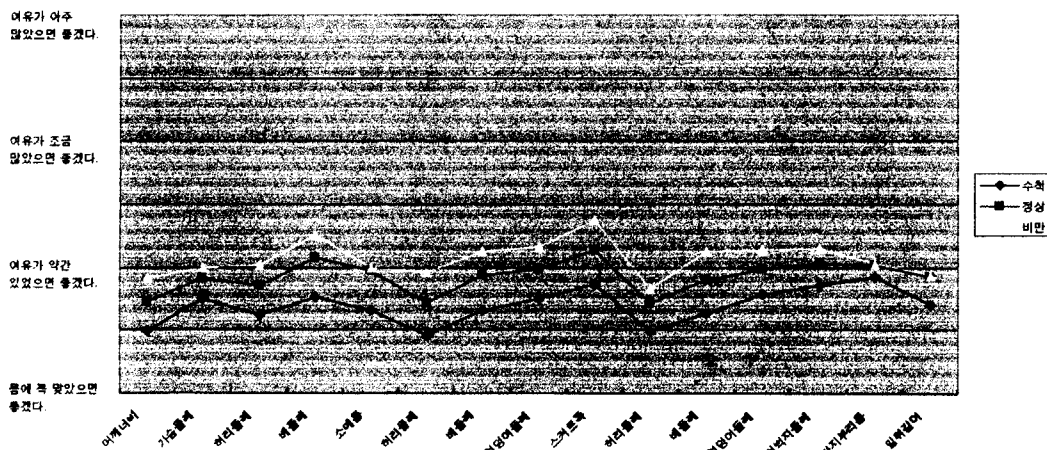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는 비만, 정상, 수척 순으로 여유분이 많은 것을 좋아했고, 밑위길이는 수척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 비만도에 따라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고, 수척, 정상, 비만형 순으로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다.

3. 연령과 비만도와의 관계

연령과 비만도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220.58$ 로 서로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55.4%)는 수척형이, 30대(55.3%), 40대(69.6%), 50대(50.0%)는 정상형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20대는 정상형(40.5%), 30대는 수척형(34.0%), 50대는 비만형(47.8%)의 비율도 높아 각 연령대별 특징이 보여지는 체형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 맞춤새 선호 경향이 연령과 비만도의 연관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을 배제한 상태에서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겠다.



<그림 3> 비만도별 부위별 맞춤새 선호 경향

〈표 5〉 비만도별 맞춤세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비만도	수척(227명)	정상(361명)	비만(111명)	F-value
재킷	어깨너비	1.50 C	1.73 B	1.92 A	26.39***
	가슴둘레	1.74 B	1.91 A	1.99 A	11.60***
	허리둘레	1.63 C	1.86 B	2.09 A	19.65***
	배둘레	1.77 C	2.08 B	2.25 A	32.14***
	소매통	1.65 B	1.97 A	2.00 A	27.61***
스커트	허리둘레	1.46 C	1.72 B	1.96 A	36.30***
	배둘레	1.65 C	1.94 B	2.13 A	35.76***
	엉덩이둘레	1.75 C	1.99 B	2.16 A	25.45***
	스커트폭	1.87 C	2.14 B	2.37 A	23.92***
바지	허리둘레	1.49 C	1.72 B	1.84 A	21.59***
	배둘레	1.63 C	1.91 B	2.13 A	38.10***
	엉덩이둘레	1.79 C	1.99 B	2.14 A	19.07***
	허벅지둘레	1.85 C	2.03 B	2.15 A	13.58**
	바지부리통	1.93	2.01	2.04	2.29
	밑위길이	1.70 B	1.92 A	1.94 A	13.17**

** : $p \leq 0.01$, *** : $p \leq 0.001$, A > B > C : Duncan-test, $p \leq 0.05$ 수준

〈표 6〉 연령과 비만도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	비만도	수척	정상	비만	total	$\chi^2 = 220.58^{***}$
20대		164	120	12	296	
		55.4%	40.5%	4.1%	100.0%	
		23.55%	17.2%	1.7%	42.3%	
30대		51	83	16	150	
		34.0%	55.3%	10.7%	100.0%	
		7.3%	11.9%	2.3%	21.5%	
40대		10	112	39	161	
		6.2%	69.6%	24.2%	100.0%	
		1.4%	16.0%	5.6%	23.0%	
50대		2	46	44	92	
		2.2%	50.0%	47.8%	100.0%	
		.3%	6.6%	6.3%	13.2%	
total		227	361	111	699	
		32.5%	51.6%	15.9%	100.0%	
		32.5%	51.6%	15.9%	100.0%	

*** : $p \leq 0.001$, 한 셀 안의 숫자는 차례로 - 실제출현빈도, 각 연령대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4. 각 연령대로 본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¹⁾

1) 20대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20대의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한 결과를 <표 7>에 나타냈다. 재킷의 배둘레, 소매통, 스커트의 배둘레, 엉덩이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재킷의 배둘레는 수척, 비만형이 정상형보다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소매통은 수척형이 정상형보다 좁은 것을 선호했다. 즉 수척형이 맞춤새 선호 경향이 가장 높았다.

스커트의 배둘레는 수척, 비만형이 정상형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엉덩이둘레는 수척형이 정상형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다.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는 비만형이 정상형보다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20대는 수척형과 비만형이 정상형보다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특히 바지의 경우 비만형이 수척형보다 평균 점수가 더 낮아, 맞춤새 선호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비만형인 여성은 의복을 선택할 때 여유분이 많아 몸을 감추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분이 적어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의복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바지의 경우 업체에서는 20대 비만형을 타겟으로 의복을 만들 때에는 그들의 외형을 감추기 위해 여유분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몸에 꼭 맞도록 여유분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2) 30대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30대의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한 결과

1)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는 것만 표에 실었음.

<표 7> 20대의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비만도	수척(164명)	정상(120명)	비만(12명)	F-value
재킷	배둘레	1.69 B	2.06 A	1.75 B	14.89***
	소매통	1.59 B	1.90 A	1.75 AB	11.08***
스커트	배둘레	1.59 B	1.86 A	1.58 B	9.45***
	엉덩이둘레	1.67 B	1.99 A	1.92 AB	10.87***
바지	허리둘레	1.50 AB	1.68 A	1.33 B	4.86**
	배둘레	1.60 AB	1.83 A	1.42 B	9.29***
	엉덩이둘레	1.75 AB	1.96 A	1.50 B	8.06***

** : p ≤ 0.01, *** : p ≤ 0.001, A > B : Duncan-test, p ≤ 0.05 수준

<표 8> 30대의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비만도	수척(51명)	정상(83명)	비만(16명)	F-value
재킷	어깨너비	1.59 B	1.78 B	2.06 A	5.87**
	배둘레	2.04 B	2.13 B	2.50 A	4.84**
스커트	배둘레	1.84 B	1.99 AB	2.19 A	3.23*
	스커트폭	2.02 B	2.10 B	2.44 A	3.28*
바지	허리둘레	1.47 B	1.72 A	1.81 A	5.14**

* : p ≤ 0.05, ** : p ≤ 0.01, A > B : Duncan-test, p ≤ 0.05 수준

를 <표 8>에 나타냈다. 재킷의 어깨너비, 배둘레, 스커트의 배둘레, 스커트폭, 바지의 허리둘레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재킷의 어깨너비, 배둘레, 스커트폭은 수척형과 정상형이 비만형에 비해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했다. 스커트의 배둘레는 수척형이 비만형보다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고, 바지의 허리둘레 부위는 수척형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비만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여유분이 많은 의복을 선호하였다.

3) 40대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40대의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한 결과를 <표 9>에 나타냈다. 재킷의 허리둘레, 배둘레,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수척형이 집단 간 차이를 보인 모든 부위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했다. 정상형과 비만형은 집단간의 차이가 없어, 30대의 결과와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4) 50대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50대 중 수척형에 속한 응답자는 2명으로 수가 적어, 수척형을 제외한 정상형과 비만형간에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를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표 10>.

<표 10> 50대 연령대의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비만도		t-value	
	정상 (46명)	비만 (44명)		
스커트	허리둘레	1.70	2.09	-3.36**
	배둘레	1.93	2.30	-3.28**
	엉덩이둘레	1.96	2.30	-3.01**
바 지	허리둘레	1.72	1.93	-2.02*
	배둘레	1.98	2.34	-3.38**
	엉덩이둘레	1.93	2.32	-3.78***
	허벅지둘레	2.04	2.30	-2.57*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재킷은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스커트는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에서, 바지는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부위 모두 정상형이 비만형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는 정상형이 비만형에 비해 여유가 적은 의복을 선호하였다.

5. 각 비만도로 본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²⁾

1) 수척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수척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를

2)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는 것만 표에 실었음.

<표 9> 40대 연령대의 비만도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비만도	수척(10명)	정상(112명)	비만(30명)	F-value
재킷	허리둘레	1.40 B	1.84 A	1.97 A	3.97*
	배둘레	1.50 B	2.07 A	2.21 A	6.22**
스커트	허리둘레	1.30 B	1.77 A	1.95 A	6.46**
	배둘레	1.50 B	1.99 A	2.08 A	5.02**
바 지	허리둘레	1.30 B	1.77 A	1.90 A	5.96**
	배둘레	1.40 B	1.93 A	2.13 A	8.47***
	엉덩이둘레	1.60 B	1.97 A	2.13 A	5.09**

* : p ≤ 0.05, ** : p ≤ 0.01, *** : p ≤ 0.001, A > B : Duncan-test, p ≤ 0.05 수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한 결과를 <표 11>에 나타냈다. 50대는 수척형에 속하는 응답자가 2명으로 적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재킷의 허리둘레, 배둘레, 소매통,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바지의 엉덩이둘레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재킷의 허리둘레는 40대가 30대에 비해 여유가 적은 것을 선호했고, 배둘레는 20대, 40대가 30대보다 여유가 적은 것을 선호했다. 소매통은 40대가 20대보다 통이 큰 것을 선호해, 부위에 따라 각 연령대별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바지의 엉덩이둘레는 40대가 30대에 비해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스커트의 엉덩이둘레는 20대, 40대가 30대에 비해 여유가 적은 것을 선호하였다.

수척형은 20대, 40대가 30대에 비해 여유가 적은

것을 선호했고, 평균에 있어서도 20대 보다 40대가 더 낮은 점수를 보인 부위가 많아 40대가 가장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상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정상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부위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는 연령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비만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업체에서는 여유량 설정시 연령보다는 비만도에 대한 고려가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3) 비만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비만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선호 경향의 차이를

<표 11> 수척형의 연령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연령대	20대(164명)	30대(51명)	40대(10명)	F-value
재킷	허리둘레	1.57 AB	1.82 A	1.40 B	4.56*
	배둘레	1.69 B	2.04 A	1.50 B	8.27***
	소매통	1.59 B	1.80 AB	2.00 A	4.68*
스커트	허리둘레	1.41 AB	1.63 A	1.30 B	3.75*
	배둘레	1.59 AB	1.84 A	1.50 B	4.74*
	엉덩이둘레	1.67 B	1.98 A	1.70 B	6.00**
바지	엉덩이둘레	1.75 AB	1.94 A	1.60 B	3.42*

* : p ≤ 0.05, ** : p ≤ 0.01, *** : p ≤ 0.001, A > B : Duncan-test, p ≤ 0.05 수준

<표 12> 비만 체형의 연령별 맞춤새 선호 경향 차이

아이템별 부위	연령대	20대(12명)	30대(16명)	40대(39명)	50대(44명)	F-value
재킷	배둘레	1.75 B	2.50 A	2.21 A	2.34 A	3.41*
스커트	배둘레	1.58 B	2.19 A	2.08 A	2.30 A	5.65**
바지	허리둘레	1.33 B	1.81 A	1.90 A	1.93 A	5.03**
	배둘레	1.42 B	2.06 A	2.13 A	2.34 A	9.64***
	엉덩이둘레	1.50 B	2.13 A	2.13 A	2.32 A	6.90***
	허벅지둘레	1.83 B	2.31 A	2.03 A	2.30 A	3.39*
	밑위길이	1.58 B	1.94 A	2.00 A	1.98 A	3.27*

* : p ≤ 0.05, ** : p ≤ 0.01, *** : p ≤ 0.001, A > B : Duncan-test, p ≤ 0.05 수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한 결과를 <표 12>에 나타냈다. 재킷의 배둘레, 스커트의 배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 밑위길이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부위에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음새 선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맞음새 선호 점수는 다른 연령대의 점수에 비해 월등히 낮고, 특히 바지는 모든 부위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20대 비만 여성은 다른 연령대의 비만 여성에 비해 여유가 적은 옷을 선호하고, 특히 바지는 더욱 이런 경향이 보여진다. 그러므로 20대 비만 여성을 타겟으로 바지를 제작할 때는 여유분을 적게 주어여야 하고, 30대 이후는 여유를 많이 주어여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기성복 정장 중 재킷, 스커트, 바지의 맞음새 선호 경향을 조사하여 연령대별, 비만도별 각각의 선호 경향의 차이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성복 정장 중 재킷, 스커트, 바지의 각 부위별 선호하는 맞음새는 모든 부위에서 '여유가 약간 있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그 다음으로 '몸에 꼭 맞는 것'을 선호하였다.
2. 성인 여성의 연령에 따른 맞음새 선호 경향은 차이가 있었다.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맞음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3,40대가 50대에 비해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였고, 30대와 40대는 맞음새 선호 경향이 비슷하였다.
3. 성인 여성의 비만도에 따른 맞음새 선호 경향도 차이가 있었다. 수척, 정상, 비만형 순으로 맞음새 선호 경향이 높았다.
4. 맞음새 선호 경향은 연령보다는 비만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비만도의 관련성을 배제해서 살펴본 결과, 각 연령대의 비만도별 맞음새 선호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차이

가 있었으나, 각 비만도의 연령대별 맞음새 선호 경향 차이에서는 정상형의 경우 각 연령대 간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상형의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한 맞음새 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연령대의 비만도별 집단, 각 비만도의 연령대별 집단에 따라 맞음새 선호 경향에 대해 각각 다른 특징을 보였다. 20대는 비만형이 정상형보다 맞음새 선호 경향이 높았고, 50대는 재킷의 모든 부위에서 비만도별 맞음새 선호 경향의 차이가 없었고, 수척형의 경우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류업체에서는 목표 시장의 소비자에게 적절한 여유분을 제공하기 위해 연령, 체형, 선호하는 맞음새 등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스타일이나 실루엣을 제공하는 의류제품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응답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소재, 패턴, 디자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맞음새 선호도 측정이 4단계의 주관적 감각에 의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 아이템별 선호하는 맞음새 측정에 관한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양원(1999). 여성용 기성복에 대한 적합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211-217.
- 박순지(1995). 중년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 분석에 따른 슬랙스 원형 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 백희영 외 3인(2000). 신체에 대한 인식과 계측 자료에 의한 여대생들의 체형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59-70.
- 성민정, 김희운(2001). 비만 판정 지수에 의한 여대

- 행의 체형 분류 및 체형 인지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3), 227-234.
- 오설영, 천중숙(2002). 소비자의 여성정장 브랜드 선호와 기성복 치수의 맞춤새. 패션비즈니스학회지, 6(1), 128-136.
- 이소영(1996). 스트레이트 스커트의 여유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2001). 성인 여성의 기성복 구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4), 357-363.
- 주재은, 정찬진, 정명선(2001). 중년 여성의 신체지각과 이상적 연령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복식문화연구, 9(5), 723-733.
- 橋詰靜子の 6인(1999). 衣料サイズの適合性の検討. 日本纖維消費者學會誌, 40(4), 246-254.

(2003년 4월 28일 접수, 2003년 7월 9일 채택)